

주간 전남농업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September

VOL. 200

2018년
9월 첫째주

주간 날씨정보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정책동향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본격 추진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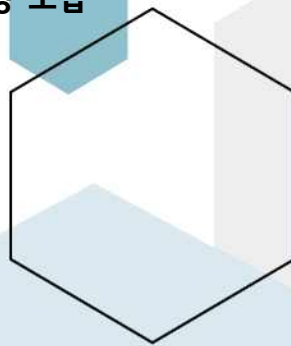
품목별 도소매 정보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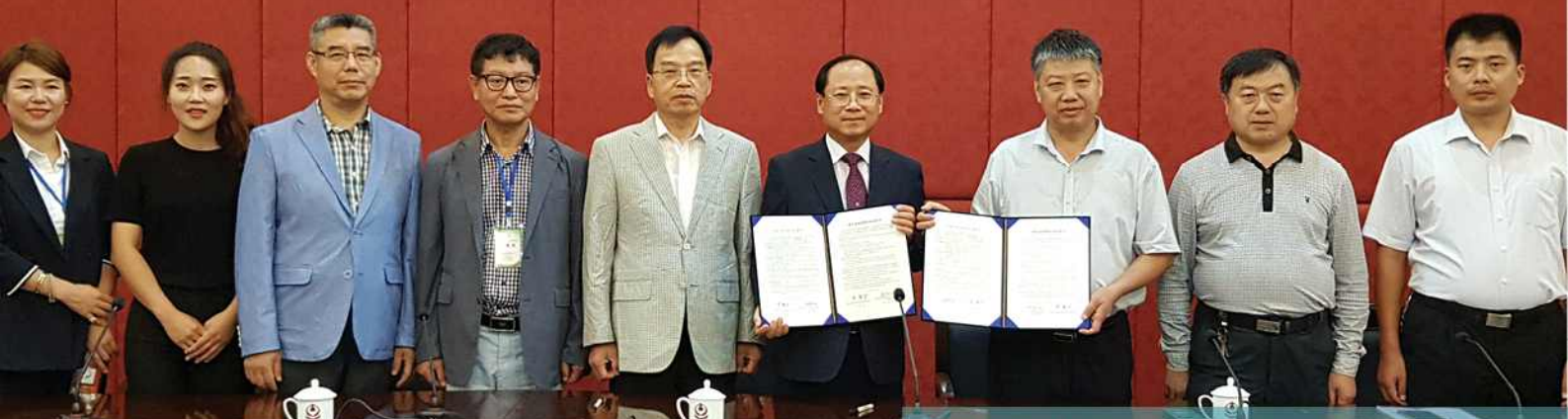
2019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신입생
550명 모집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지금은 겨울작물 씨부림을
준비할 때



곤충산업발전협약서



전남 곤충자원 산업화를 위해 중국과 손잡다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기압골 영향으로 4일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8~22도, 최고기온: 26~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3~13mm)보다 많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6

- ▶ 식량작물 - 벼멸구, 흰등멸구, 먹노린재 등
- 채소·특용작물 - 담배나방, 파밤나방, 고추 역병·탄저병 등
- 과수작물 -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3. 농산물 관측정보 7

- ▶ 감자 가격 및 생산전망
- ▶ 버섯 가격 및 생산전망
- ▶ 엽근채소 가격 및 생산전망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4

- ▶ 고흥유자, 중국 수출시작 공략 박차

❖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5

- ▶ 전남농업기술원, 유기농 양파 기계화로 노동시간 확 줄인다
-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곤충자원 산업화를 위해 중국과 손잡다
- ▶ 지금은 겨울작물 씨뿌림을 준비할 때
- ▶ 논에 심은 수수류 생육 나쁘면 IRG·귀리 심으세요
- ▶ 더 쉽고 더 빠르게 숙지황 분말 만드는 방법 개발
- ▶ 우리 쌀맥주 수제 맥주 시장에 도전장을 내다
- ▶ 사과 주요 병해 탄저병 방제 철저히 하세요
-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 7. 정책 동향 23

- ▶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본격 추진
- ▶ 식량 종자의 품질 검사 이제 드론으로
- ▶ 농식품부·행안부, 찾아가는 교육으로 가축질병 방역 선제적 대응한다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6

- ▶ 여수시,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
- ▶ 나주시,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컨설팅 실시
- ▶ 곡성군, 더 맛있게! 더 간편하게... 토란가공 연구 박차
- ▶ 장흥군, 생산에서 유통까지... 남도드림 생협 출범
- ▶ 영광군, 양파 기계화 육묘 기술교육으로

9. 해외 농업정보 31

- ▶ 진공 튀김 공법으로 제조된 버섯 스낵류 출시
- ▶ 일본, 명품과일이 디저트로 변신해 소비층 확대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9. 3. 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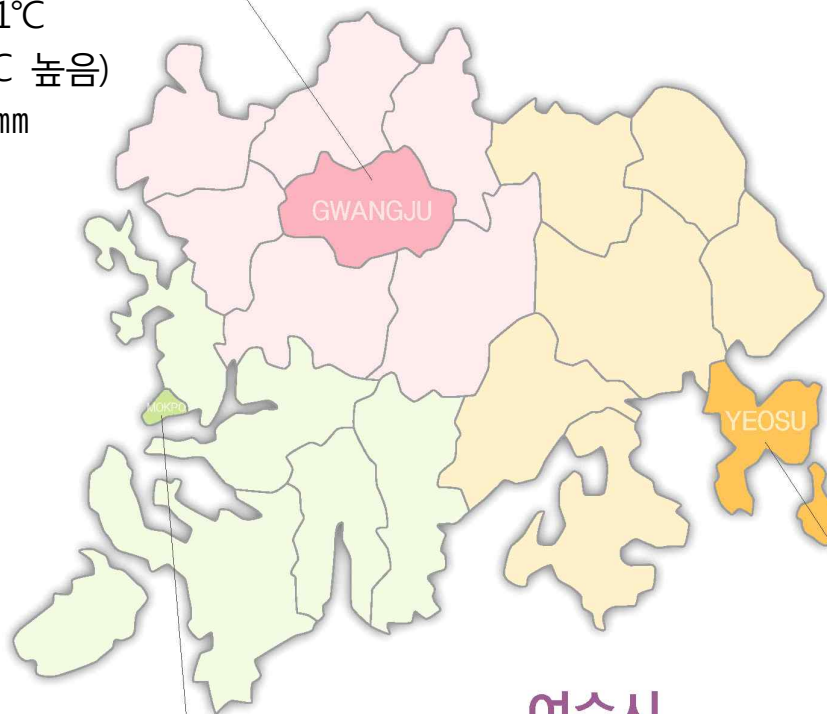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6

- ▶ 2019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신입생 550명 모집
- ▶ 청렴한세상

1.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3.7℃
(평년대비 2.8℃ 높음)
- 최고기온 : 28.4℃
(평년대비 1.9℃ 높음)
- 최저기온 : 20.1℃
(평년대비 2.6℃ 높음)
- 강 수 량 : 5.6mm



목포시

- 평균기온 : 23.7℃
(평년대비 2.5℃ 높음)
- 최고기온 : 27.9℃
(평년대비 1.0℃ 높음)
- 최저기온 : 20.7℃
(평년대비 2.1℃ 높음)
- 강 수 량 : 5.5mm

여수시

- 평균기온 : 23.8℃
(평년대비 1.9℃ 높음)
- 최고기온 : 27.0℃
(평년대비 1.6℃ 높음)
- 최저기온 : 21.3℃
(평년대비 1.5℃ 높음)
- 강 수 량 : 5.9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했으니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기 방제에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기관에서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식량작물	· 주의보	·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도열병
	· 예 보	· 벼멸구, 흰등멸구, 먹노린재, 잎집무늬마름병, 흰병마름병, 깨씨무늬병, 이삭누룩병, 콩노린재류
채소 · 특용작물	· 주의보	· 담배나방, 파밤나방, 고추 역병 · 탄저병, 고추 바이러스병 등
	· 예 보	· 고랭지 무 · 배추 무름병
과수작물	· 주의보	·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사과 탄저병
	· 예 보	· 과수심식나방류, 노린재류, 총채벌레 등, 사과갈색무늬병, 겹무늬썩음병, 포도 갈색무늬병 · 노균병, 과수화상병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관측정보

< 감자 가격 및 생산전망

고랭지감자 생산량 전년 대비 9.5% 감소한 8만 9,532톤으로 전망

- 재배면적은 감자 가격 강세로 무 등의 경합작물 재배농가가 일부 감자로 전환하면서 전년 대비 5.1% 증가한 3,410ha 수준으로 추정
- 단수는 지속된 폭염 및 가뭄 피해 등으로 작황 부진이 심화되어 전년 대비 13.9% 감소한 2,626kg/10a 수준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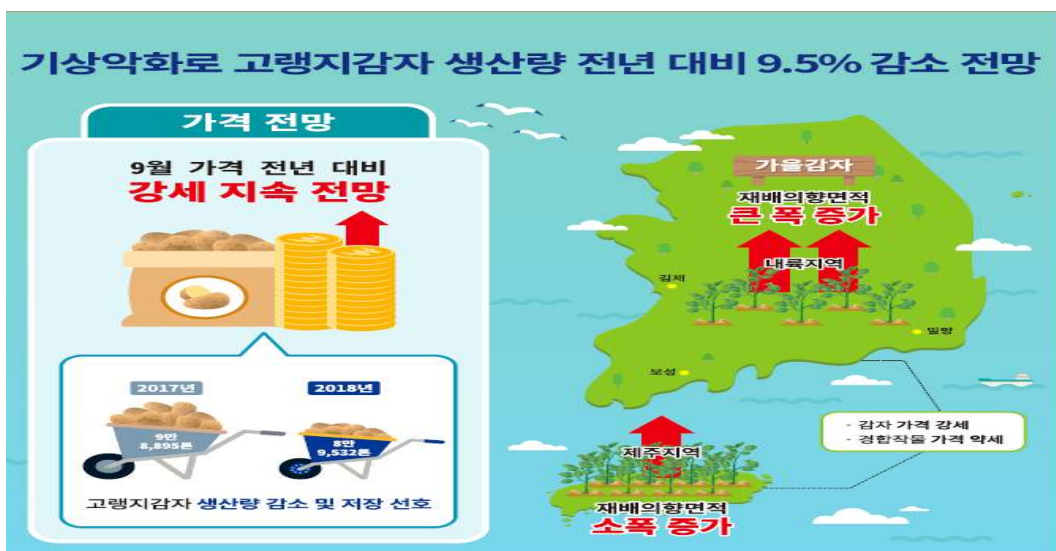
9월 감자 가격 4만 2천~4만 5천 원 내외로 전망

- 9월 가격은 고랭지감자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가을감자 재배면적 전년 대비 9.7% 증가 전망

- 주산지인 제주지역 재배면적은 최근 감자 가격 강세, 경합작물의 가격 약세 등으로 전년보다 5.3% 증가 전망
- 내륙 지역도 감자 가격 상승과 경합작물의 전년도 출하기 가격 약세 등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버섯 가격 및 생산전망

📌 느타리버섯

- 9월 느타리버섯 2kg 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추석 대비 입상 증가로 출하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9~10월 느타리 입상의향은 작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1% 내외 감소할 것으로 파악됨

📌 양송이버섯

- 9월 양송이버섯 가격은 여름철 고온 피해로 출하량 감소 및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농가 증가로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9~10월 입상의향은 작년 출하기 가격 하락 및 폐업농가 증가로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파악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가격 및 생산전망

📌 엽근채류 가격 평년보다 높을 전망

- 배추 가격 작년(14,470원)보다 낮으나, 평년(9,950원)보다는 높은 13,000원/10kg 내외 전망
- 무 가격 작년(13,950원) 및 평년(12,110원)보다 높은 22,000원/20kg 내외
- 당근 가격 작년(44,760원) 및 평년(38,840원)보다 높은 75,000원/20kg 내외
- 양배추 가격작년(10,490원)보다 낮으나, 평년(6,840원)과 비슷한 7,000원/8kg 내외 전망

📌 2018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평년보다 감소, 무는 증가 전망

-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평년보다 6% 감소하나, 무는 4% 증가 전망
- 월동무 재배(의향)면적 평년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겨울철 기상 양호할 경우 공급과잉 우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9. 3. 기준 / 단위 :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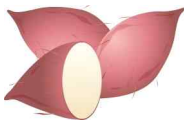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20kg	46,320	46,060	↑	41.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920	32,700	39,083	↑	18.5

콩(백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35kg	177,800	177,800	↑	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7,600	171,800	155,350	↑	14.5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0kg	44,600	40,400	↑	4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9,880	31,550	27,580	↑	61.7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20kg	50,800	49,800	↑	18.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920	43,050	24,293	↑	109.1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0kg	19,400	23,600	↑	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440	18,900	14,035	↑	38.2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8kg	12,800	13,400	↑	4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772	8,920	7,472	↑	71.3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00개	81,000	61,333	↓	8.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600	88,000	70,711	↑	14.6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20개	34,200	25,800	↓	3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440	52,500	26,867	↑	27.3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60kg	1,610,000	1,200,000	↑ 67.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86,000	962,500	806,867	↑ 99.5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20kg	120,000	120,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5,000	-	-	-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20kg	71,400	61,000	↑ 13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680	31,050	37,720	↑ 89.3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5kg	34,800	38,800	↓ 2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680	47,500	31,290	↑ 11.2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0kg	31,000	21,800	↓ 17.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400	37,350	26,357	↑ 17.6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0kg	55,000	53,6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4,280	51,850	54,297	↑ 1.3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20kg	15,600	16,200	↓ 39.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000	25,900	20,887	↓ 25.3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kg	2,980	2,940	↑ 28.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12	2,325	1,921	↑ 55.1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개	23,800	24,200	↑ 6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280	14,650	15,000	↑ 58.7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5kg	24,000	18,800	↓ 2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560	30,500	18,980	↑ 26.4

과일류

사과(쓰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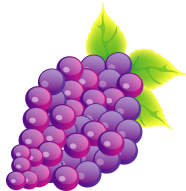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0kg	-	39,8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360	-	33,044	-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5kg	35,200	34,8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720	-	44,593	↓ 21.1

포도(거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2kg	13,400	12,400	↑ 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400	12,250	10,610	↑ 26.3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00g	8,156	8,160	↑ 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961	8,135	7,468	↑ 9.2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kg	5,426	5,379	↑ 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54	5,279	5,577	↓ 2.7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30kg	495,800	499,200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7,600	516,600	536,533	↓ 7.6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2kg	17,000	17,400	↑ 15.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480	14,750	15,747	↑ 8.0

새송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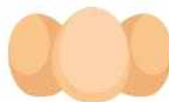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2kg	8,200	8,000	↓ 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040	8,350	8,523	↓ 3.8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00g	2,138	2,228	↓ 9.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84	2,352	2,138	- 0.0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30개	5,396	5,106	↓ 1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83	6,146	5,825	↓ 7.4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	1주일전 (8/27)	전년대비	
1L	2,612	2,605	↑	3.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27	2,527	2,543	↑	2.7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9. 3. 기준 / 단위: 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78	5,653	5,490	↑ 0.4	↑ 3.3
	거세	6,727	6,802	6,559	↓ 1.1	↑ 2.5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119	3,078	2,983	↑ 1.3	↑ 4.4
	수	4,067	4,059	3,844	↑ 0.2	↑ 5.5

육우(600kg)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3,651	3,662	2,74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3	↑ 24.8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236	233	11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3	↑ 51.7

돼지(110kg)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459	439	48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4	↓ 5.4

육계(원/kg)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1,965	2,063	1,22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0	↑ 37.7

계란(원/특란10개)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1,370	1,135	1,50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7.2	↓ 9.5

오리(원/kg)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2,567	2,567	2,6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0	↓ 3.9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고흥유자, 중국 수출시작 공략 박차

- 전남수출기업협동조합 주관, 중국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8월 28일 동강농공단지 내 참살이영농조합 법인에서 중국 사천성 바이어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수출상담회는 전남 수출기업 공동브랜드 『전라미향』 컨소시엄 구성 주체인 전남수출기업협동조합이 주관했으며, 고흥에서는 참살이영농조합법인이 참가했다.
- 참살이영농조합법인은 고흥군의 대표적인 유자가공식품 수출기업으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중국 사천성 바이어 14명이 참살이영농조합법인을 방문, 생산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수출 전망을 밝게 했다.
- 고흥군은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 포장재 제작 지원 △해외 판촉행사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11월 중순경에는 10여 명의 해외바이어를 군으로 초청해 수출기업 및 희망기업과 1:1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고흥군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전남농업기술원, 유기농 양파 기계화로 노동시간 확 줄인다

- 노동력 절감과 논 이용으로 연작피해 경감 일석이조 효과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의 대표 노지작물인 유기농 양파를 논에서 기계로 재배하여 노동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 지난 2017년부터 전남농기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파 유기농 현장실용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를 논에서 시험 재배한 결과 양파 수확기계로 하루에 2.4ha를 수확할 수 있었으며, 이는 농업인 36명이 손으로 수확해야하는 면적이다.
- 한편, 농업기술원의 생산비 절감모델 실증연구에서도, 양파를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할 경우, 노동시간을 57.1%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연구를 통해 유기농 양파재배 주요 작업과정을 기계화하여 재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령 농업인의 악성노동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논에서 양파와 사료벼를 서로 다른 시기에 재배하는 이모작 재배 기술 개발로, 논 이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동일 장소에 같은 작물을 계속 심을 때 발생하는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전남지역 양파 재배면적은 11,327ha로 전국의 43%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밭에서 재배하고 있어 연작에 의한 피해 등으로 유기농 인증 면적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곤충자원 산업화를 위해 중국과 손잡다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잠업연구소와 중국산동성농업대학 식물보호학원(원장 유옥승)은 8월 29일 전남 산업곤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규모를 늘리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곤충잠업연구소와 식물보호학원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교류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업곤충 전반에 대한 상호 왕래와 인적·물적 자원 공유 △곤충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연구개발한 곤충 관련 제품의 양국 내 판매 및 마케팅 협력 △양 지역 간 국제행사 홍보마케팅 협력 및 참가를 위한 상호초청 지원 등이다.
- 우리나라는 누에, 메뚜기, 백강잠, 갈색거저리 애벌레,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애벌레,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등 7종이 식용곤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곤충사육농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은 아직까지 사육시설이나 가공시설 등이 많이 부족하여 전국 5위권 정도이고, 사육량과 판매량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
- 곤충잠업연구소 구희연 연구사는 “이번 협약은 곤충자원 산업화에 대한 정보교류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중국 곤충 전문가들이 2019국제 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심포지엄 개최와 함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도내 곤충사육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지금은 겨울작물 씨뿌림을 준비할 때

- 제때 파종하면 무사히 겨울나고 수확량도 늘릴 수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밀과 보리, 호밀, 트리티케일 등 겨울작물의 씨뿌림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역에 맞는 작물을 골라 제때 파종할 것을 당부했다.
- 겨울작물이 무사히 겨울을 나려면 재배지를 먼저 살핀 다음 품종을 고르고, 파종 시기를 결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재배지가 너무 습하면 기계를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제때 물을 떼 버릴 수확한 다음 바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가을에 씨를 뿌릴 때는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지역에 맞는 시기에 맞춰 파종해야 한다.
- 너무 일찍 씨를 뿌리면 겨울을 나기 전에 줄기 안에서 이삭이 자라버려 월동 중 피해가 커진다.
- 늦게 뿌려도 문제가 된다. 기온이 낮아 싹 트는 시기가 늦춰지고, 충분히 새끼를 치지 못한 어린 상태로 겨울을 나므로 얼어 죽거나 수량이 줄어든다.
- 겨울작물의 씨뿌리기에 알맞은 시기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강원·충북 10월 상순 ~ 중순 △충남·경북 북부 10월 중순 ~ 하순 △경북 남부·전북·전남은 10월 하순 ~ 11월 상순 △제주는 11월 상순이다.
- 씨뿌림용 종자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 축협 등에 문의하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논에 심은 수수류 생육 나쁘면 IRG·귀리 심으세요

- 한 번 파종으로 두 번 수확하는 재배법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옥수수나 수수류가 고르게 잘 자라지 못한 논에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이하 IRG)와 귀리 종자를 함께 뿌리면 안정적으로 풀사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두 종자를 8월 말께 뿌리면 IRG와 귀리를 11월 초에 먼저 거두고, 이듬해 5월 초에 IRG를 2차로 수확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기존 방법대로 옥수수와 귀리를 심는 것보다 옥수수 재배 후 IRG와 귀리를 재배하면 풀사료 생산량은 28%, 경영 소득은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파종은 자람 상태가 좋지 않은 논에서 수수류를 거둔 뒤, 8월 말부터 되도록 빨리하는 것이 좋다.
- IRG와 귀리는 이른 시기에 수확하는 조생종을 선택한다. IRG는 추위에 강한 코윈어리, 그린팜 품종 등을, 귀리는 하이스피드 품종처럼 10월 중순께 이삭이 패는 품종으로 고른다.
- 파종량은 1ha 당 IRG는 30~40kg, 귀리는 120~140kg을 뿌린다. 두 작물이 함께 자라므로 가을철에 많이 자라는 귀리를 너무 많이 뿌리면 IRG가 잘 자라지 못해 죽는다.
- 발갈이 후 IRG를 먼저 흘뿌린 뒤에 파종 기계로 귀리를 30cm 간격으로 줄 뿌리거나 흘뿌린다. 이후 재배지 전체를 답압기(눌러주는 기구)로 단단히 눌러준다.
- 8월 말께 1ha 당 질소 60kg(요소 130kg), 인산 100kg(용성인비 500kg), 칼리 100kg(염화칼리 167kg)을 밑거름으로 준다. 9월 중순께 10cm 정도로 풀이 자라면 질소 60kg(요소 130kg)을 더 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더 쉽고 더 빠르게 숙지황 분말 만드는 방법 개발

- 7일 걸리던 공정을 3일로, 비용은 70% 덜 들어 효과적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숙지황을 분말로 만들기 위해 기존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인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숙지황은 한방에서 보약은 물론, 지혈과 이뇨, 당뇨, 고혈압 약으로 쓰이는 중요한 약재다. 항종양이나 면역력을 높이고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 그러나 숙지황을 가공하기 위해 분말로 만드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숙지황을 24시간 냉동한 다음 분쇄(잘게 부스러뜨림)해 감압 건조(공기압을 낮춰 건조하는 방법)한 다음, 체별(체에 쳐서 입자를 분리)해 3일 만에 분말을 만들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다.
- 기존에는 세절(숙지황을 잘게 자름) - 동결 - 동결 건조(얼린 재료의 얼음을 승화시켜 건조하는 방법) - 분쇄 - 체별을 거쳐 분말이 되기까지 7일이 걸렸다. 이 중 동결 건조를 마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 제조 시간이 줄면서 1kg당 생산 비용도 약 70% 줄일 수 있게 됐다(30일 기준).
- 냉동 온도를 조절해 숙지황의 경도(단단함)를 다르게 분쇄하면 분말 입자 크기도 다양해진다. 온도가 낮을수록 고운 입자가 많다.
- 입자가 작으면 마시는 차 형태의 티백용으로, 입자가 크면 추출물 형태의 건강식품처럼 산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 공정은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로, 이 공정에 따라 분말을 만들면 품질에 영향을 적게 미치므로 산업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 앞으로 기술을 이전해 농가와 농산물 가공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우리 쌀맥주 수제 맥주 시장에 도전장을 내다

- 발아벼 이용 당화 잘 되는 쌀맥주 가공 기술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쌀맥주를 만들기 위해 당화가 잘되는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쌀 함량을 70%까지 높인 쌀 맥주를 개발했다.
- 기존에 쌀가루로 만든 맥주는 전분의 당화가 어려워 쌀 함량을 20~40%로 제한했다. 적은 양의 보리맥아 효소만으로는 부족해 상업용 효소를 더 넣어야 했다.
- 발아한 벼로 몰트를 만들고 당화가 되면, 벼 자체의 효소(α -amylase)로 인해 양조 적성이 우수해진다.
- 벼가 발아되면 당화 효소(α -amylase)가 만들어진다. 이때 파쇄성(Friability)이 32%에서 46%로 향상되면서 벼의 당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쌀맥주를 개발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수제 맥주 시장에 국산 쌀과 보리 이용이 늘어 자연스럽게 쌀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국내에서 육성한 벼 품종 새오대를 발아해 만든 70% 쌀맥주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에서 선호도(평균 6.3)가 높아 시장 확대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왼쪽부터 호품보리맥주, 50%쌀맥주, 70%쌀맥주

📌 사과 주요 병해 탄저병 방제 철저히 하세요

- 나무 윗부분 병든 열매 따내고 살균제 뿌려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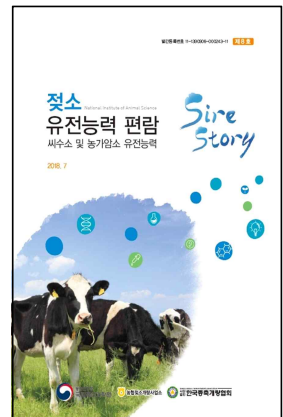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8월 하순에 계속되는 비로 사과에 발생하는 곰팡이 병해인 탄저병 발생이 늘고 있어 각별히 방제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사과 탄저병은 재배 농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관리가 필요한 주요 병해다.
- 이 병원균이 자라는 데 알맞은 온도는 25~28℃로, 습기가 많은 기후 조건에서 발생이 늘어난다.
- 특히, 빗물에 의해 다른 열매로 이동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관리를 해야 한다.
- 탄저병에 걸린 열매는 초기에 검정색 작은 반점이 나타난다. 병이 진행될수록 감염 부위의 표면이 함몰되며 내부는 갈색으로 변한다. 표면에 주황색 또는 분홍색의 분생 포자를 형성해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 탄저병은 사과 중생종 품종인 홍로, 감홍뿐만 아니라 후지 품종에서도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장마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 태풍이 지나간 후 비가 계속 내리면 탄저병균이 빗물을 타고 열매 안으로 들어가 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또한, 습한 환경을 좋아하므로 과원 내 통풍과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한다.
- 비가 그치면 사과 탄저병 적용 약제를 뿌려준다. 사과나무 상단부에 달린 열매에서 발생한 경우, 반드시 열매를 따내야 한다.
- 사과 탄저병 방제용으로 등록된 살균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http://www.rda.go.kr>)의 농업기술 - 농자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국립농업과학원
11-1190881-001702-01

악용자원
방지네의 사육과 활용가치
Resource utilization in a phytomycorrhizal resource rearing and application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기술원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본격 추진

- (추진배경) ①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②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가 경제 활성화, ③ 할인 판매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 (수급여건)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장기 폭염 영향 등으로 채소·임산물 등 일부 품목 생산량 감소, 평년대비 다소 높은 가격 전망
- (수급대책) 평년보다 1주일 앞당겨 추석 3주 전부터 확대 실시(9. 3. ~ 9. 21.)
 - ① 추석 대책기간 중 10대 성수품 공급을 평균 1.4배 확대
 - * 농산물 1.6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1.6배 / 과일·축산물 선물세트 특별공급
 - ** 대책기간 중 전체 공급량 : '17년 81,726톤 → '18년 123,279톤(전년비 51%↑)
 - ② 성수기를 활용해 햇과일 등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 지원
 - * 직거래 장터 등 오프라인 장터 개설 확대, 공영 홈쇼핑 판매방송 집중 편성
 - ③ 할인판매, 알뜰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 * 온라인, 직거래 매장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한 장터 위치, 가격동향, 최적 구매시기 등 정보 제공
 - ④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안심 소비 환경 조성
 - * 도축장 특별 위생 감시, 부정 유통행위 집중 단속
- (수급안정 대책반) 품목별 공급 상황·가격 동향 등 집중 관리
 - * 총괄반, 과일반, 축산물반, 임산물반 등 4개반 편성·운영(반장 : 차관, 9. 3. ~ 9. 21.)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 종자의 품질 검사 이제 드론으로

- 드론이 촬영한 영상으로 종자 생산의 현장 관리 고도화 -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벼, 보리, 콩 등 정부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보급종 생산단계의 현장검사업무에 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람이 논밭에 들어가서 잡초 및 병충해 발생 정도를 직접 조사하던 기존 방식을 대신하여 앞으로 드론을 띄워놓고 마치 논밭 위를 날아다니듯이 검사하는 시대가 도래 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사람의 눈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드론을 도입할 경우 얼마나 더 쉽고 빠르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 국립종자원은 지난 5월 말부터 준비팀을 구성하였고 드론 전문가 초청교육과 함께 실제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종자 생산 업무에 드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 최병국 종자원장은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규정의 개정과 교육 등을 준비하고,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생산관리부터 검사단계까지 드론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행안부, 찾아가는 교육으로 가축질병 방역 선제적 대응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행안부(장관 김부겸)는 공동으로 전국 지자체 방역·재난관리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축질병 대비와 대응을 위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18. 10월 ~ '19. 3월) 전에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한 담당공무원의 위기관리 능력배양과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 주요 교육내용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긴급행동요령, 최근 법령 및 위기관리매뉴얼 개정사항,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것이며,
- 행안부는 국가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기, 가축질병에 적합한 실무반 편성, 운영 절차 마련 등 매뉴얼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 농식품부와 행안부에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에 가축질병 대응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기 간 : 9. 3.(월) ~ 9. 13.(목)

◇ 대 상 : 660여명(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방역·재난관리 부서)

◇ 지 역 : 4개 권역

* 9. 3. 수도권(서울) / 9. 6. 충청권(세종) / 9. 10. 호남권(전주) / 9. 13. 영남권(김천)

◇ 내 용

- (농식품부)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방역규정 및 발생 시 대응요령

- (행안부) 국가 및 지자체 재난관리체계, 매뉴얼 개정 사항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

- 벼·배·사과 등 57개 품목... 지역 농협서 가입 -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가뭄과 태풍, 폭염 등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규모는 보험료의 80%로 농림축산식품부가 50%, 여수시가 20%, 전라남도가 10%를 부담한다. 농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 특히 유기인증 친환경농가는 여수시와 전남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자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대상은 벼, 배, 사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57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물이다.
- 가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지역 농협에서 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해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업인들께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여수시



나주시,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컨설팅 실시

- 11월까지 컨설팅 참여 농가, 생산자 단체 수시 모집 -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지역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GAP인증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통해 GAP선도 지자체로서 위상 정립에 나설 계획이다.
- 시에 따르면, GAP 인증컨설팅은 농가별 GAP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조사, 위해요소 분석·관리요령 지도와 인증신청 등이 진행된다.
- 특히, 인증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농장별 위해요소관리계획에 대한 분석과 예방조치 방법 등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고, 인증 후에는 신청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 등까지 일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GAP 인증을 원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와 컨설팅 업체에 오는 11월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 나주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GAP 인증제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GAP인증면적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시는 배, 미나리, 참외, 플럼코트 등 1,263농가(1,594ha)가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말까지 인증면적 1,800ha 확대를 목표로 이통장 GAP교육과 주산지GAP안전성 분석사업을 추진해 GAP에 대한 농가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 출처 : 나주시

< 곡성군, 더 맛있게! 더 간편하게... 토란가공 연구 박차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개발 토란가공품 현장실용화 시범 적용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식재료 토란의 조리방법 편리성과 토란의 대중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공기술을 연구 개발해 관내 업체에 시범 적용하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 토란은 건강에는 좋은 식품이지만 요리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강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토란활용 다양한 가공품 개발 및 기술 실용화 연구를 단독으로 수행하며, 토란이 소비자에게 더욱 더 친근한 식재료로 다가가기 위해 현장 실용화 연구에 힘쓰고 있다.
- 연구 내용은 토란을 소재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토란파이, 토란약과 등 토란 가공품 개발과, 토란으로 보다 더 간편하고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스피드 레시피 개발 등을 진행한다.
- 군 관계자는 “우리군 토란이 전국 재배 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생산량도 70%가 넘어 전국의 토란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연내 개발된 토란파이, 토란약과의 개발 기술을 관내 업체 2개소에 시범 적용한다”며 “앞으로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출처 : 곡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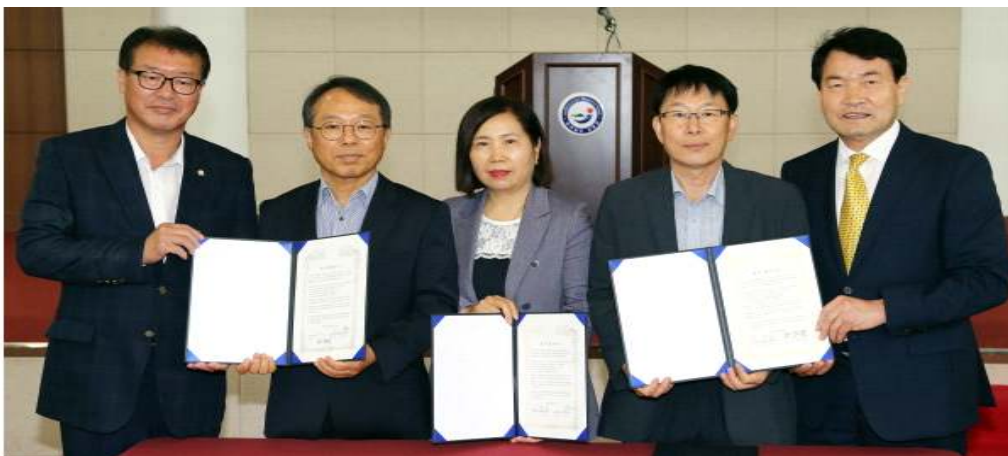




장흥군, 생산에서 유통까지... 남도드림 생협 출범

- 장흥군 농식품 가공업체와 생산농가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 남도드림 생산자 협동조합(이사장 김양진)이 지난 30일 오전 장흥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 남도드림 생협은 장흥군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63개소와 생산농가 82곳 등 145명의 회원이 참여해 설립됐다.
- 생산자 중심의 법인으로 다양한 공급자 플랫폼 구축해 농수축산식품 유통구조의 복잡다양성 줄이고 소비자의 수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과 공동판매 및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품목구성과 가격경쟁력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출범에서는 자연사랑협동조합과 스마트 팜 FPC 등 서울시 소재 2개의 소비자 협동조합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 업무협약에서는 장흥의 청정 환경 속에서 생산한 고품질 친환경 먹거리를 대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 출처 : 장흥군





영광군, 양파 기계화 육묘 기술교육으로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양파재배 농업인 약 70명을 대상으로 기계정식 육묘방법에서부터 트레이 관리법, 육묘상 환경조건 등 양파 기계화 재배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 양파 생산 과정에서 정식은 인건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최근 양파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파 묘를 자동으로 정식하는 기계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 그럼에도 기계정식에 적합한 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육묘 트레이 내에 뿌리가 건실하지 못하거나 파종 후 발아율이 좋지 못하는 등의 애로를 겪는 농가가 많아 이번 육묘 기술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 양파 기계정식은 농가 노동력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뿌리가 활착되는 시간이 기존보다 10일 가량 단축되어 월동율을 높이고 수확량도 증대시켜 농가 소득향상과 직결될 수 있다.
- 양파 재배 농업인 이기원씨(51세, 영광군 묘량면 동삼로)는 “이번 육묘 기술교육을 통해 노지육묘와의 차이점을 배우고 트레이를 이용해 육묘상을 만드는 법을 세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파종기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해주어 더욱 더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영광군



9. 해외 농업정보

< 진공 튀김 공법으로 제조된 버섯 스낵류 출시

- 고공에서 바삭함을 유지해야하는 비행기용 바나나·코코넛 스낵을 제조해 온 FlyGreen사는 최근 자매회사인 Mudlrk를 통해 진공튀김 공법을 이용한 4가지 종류의 표고버섯 스낵들을 출시함.
- 오리지널, 매운 버팔로, 꿀·양파 머스터드, 검은 페퍼의 네 가지 맛으로 출시된 상품들은 온라인을 통해 시험 판매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수입된 버섯들은 기존의 공기 건조(air-drying)이나 냉동 건조(freeze-drying) 공법이 아닌 진공 튀김(vacuum-fries)공법으로 제조됨. 진공튀김 공법은 공기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튀겨지기 때문에 발화점이 낮아서 기름이 적게 들어가고, 튀기는 시간도 단축되어, 더 바삭한 느낌을 준다고 함. 또한, 버섯 스낵들은 무방부제, 콜레스테롤프리, non-GMO 등 건강한 스낵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함.
- 버섯 스낵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진공 튀김 공법으로 바삭함과 풍미를 더해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Mudlrk사는 완전 분해되어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스낵의 바삭거림을 유지하는 포장법도 개발하였음.
- 건강과 환경에 이로운 이미지와 함께 인기 상승 중인 버섯을 재료로 한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Food Navigator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버섯시장은 2015년의 341억 달러에서 2024년 694억 달러로 두 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여러 가지 요리나 맛에 잘 적용되는 장점 외에도 버섯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베타 그루칸(fiber beta glucan)과 비타민 B, 셀레늄, 칼륨 등을 함유하고,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없는 슈퍼푸드로 알려짐. 대표적 스낵회사인 켈로그(Kellogg)도 지난 가을 표고버섯 단백질을 만드는 MycoTechnology사에 투자하기도 함.
- 채소를 원료로 한(vegetable-based) 칩들은 스낵 부문에서 인기가 상승하는 부문으로 식품제조사들은 이런 트렌드에 부응하고 있는데, General Mills's 의 벤처캐피탈인 301Inc는 케일, 비트, 브로컬리 칩으로 성공한 Rhythm Superfoods사에 투자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PepsiCo사와 합병한 Frito-Lay사가 BFY(better-for-you) 브랜드에 쌀과 검은콩, 칩피 등으로 만든 스낵들을 출시함. PepsiCo사는 구운 과일과 채소 스낵의 제조사인 Bare Foods사를 인수하여 과일, 채소 스낵들을 더 개발할 예정임.
- 조사기관인 닐슨(Nielsen)에 의하면, 스낵 판매는 2017년 33억 달러로 2016년에 비해 1.3억 달러 증가함. 그 중에서도 non-GMO 성분의 스낵들이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성장하였으며, 인공색소·인공향이 없거나, 설탕, 포화지방, 소금의 함량을 줄이고, 곡물, 채소,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함유한 스낵들의 인기가 가장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버섯 스낵과 바나나 · 코코넛 스낵

< 일본, 명품과일이 디저트로 변신해 소비층 확대

- 일본에서는 샤인머스켓 포도와 백도 등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과일을 파르페와 케이크 재료로 공급하면서 판로를 확대하는 산지가 늘고 있다.
- 고급 신선 과일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손이 잘 가지 않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고급 과일을 디저트에 활용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면 디저트를 좋아하는 고객을 팬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일본 전국에서 복숭아 산지로 유명한 곳은 오카야마지만, 도쿄에서는 비교적 인지도가 낮다. 오카야마 시는 인지도 확대를 위해 8월 9일부터 도쿄 마루노우치에서 2일간 『오카야마 백도 파르페 Days』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마루노우치에서 영업중인 8곳의 카페가 오카야마 산 백도와 포도를 사용한 파르페를 자신의 카페에서 판매하는 이벤트다.
- 오카야마 시는 이벤트 참가 카페에 메뉴 하나당 오카야마 산 백도 1/2개와 포도(샤인머스켓·오로라블랙)를 3알씩을 파르페로 활용하여 파르페 1개 800엔(동일가격)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과일 조달비용을 지원했다.
-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오카야마 시는 이벤트 홍보효과에 만족했다는 결과를 전했다. 또한 과일 공급에 협력한 JA전농오카야마도 오카야마 산 백도는 수도권에 출하량이 적기 때문에 지명도 확대에 이어질 것이라 효과를 예상했다.



- 야마나시 현과 JA그룹야마나시로 구성된 농축산물판매강화대책협의회는 수도권의 양과자점에 디저트 메뉴 고안용으로 과일을 제공하고 있다. 단, 상품화할 경우에 야마나시 현 과일을 조달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샘플용 과일 제공으로 샤인머스켓과 자두 등을 사용한 케이크와 크레이프, 와플 판매로 이어졌다.
- 협의회는 신선과일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케이크 등에 활용하면 신선과일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고 한다.
- 일본에서는 신선과일 소비자 감소되어 소비층 확대를 위해 프리미엄 과일을 디저트로 변신해 소비기회 확대를 꾀하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파르페 등으로 선보여 신선과일의 맛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 한국의 농식품을 일본에 홍보할 때에도 선호도가 높은 디저트 등을 활용한다면 소비자에게 상품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기업	주요 과실브랜드명 및 산지	용도
후지야	구마모토 산 딸기 '유베니', 메론 '퀸시', 야마가타 산 백도 '모치쓰키', '베라 프랑스', 세토나이 레몬	케이크, 타르트, 밀푼유 등
긴자 코지코너	딸기 '기라빠카오리', '베니훗페', '도치오토메'	케이크, 파이, 타르트
샤토레제	도치기, 시즈오카, 사가산 등의 딸기, 나가노 산 여름딸기, 야마나시 산 복숭아, 포도	케이크, 떡
로손	포도, 메론, 딸기	케이크, 떡
미니스톱	딸기 '아마오우', 시즈오카 산 '크라운메론'	소프트크림, 푸딩, 슈크림

일본 양과자점 · 편의점에 사용하는 과실예시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9. 3. 시카고 선물거래소)

- 주요 곡물 선물가격, 노동절 휴장을 앞두고 환매수로 전부 상승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2.0%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예상보다 적은 캐나다의 밀 전망치와 기술적인 매수, 환매수로 인해 상승했다. 캐나다 통계청은 2018년 밀 생산 추정치를 이전 추정치인 3,060만 톤보다 낮은 2,899만 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 농무부의 추정치 3,250만 톤보다 낮은 수치이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2.4%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환매수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멕시코에 옥수수 10만 611톤을 수출한지 하루 만에 미 농무부는 민간 수출업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곳에 2018/19년도 옥수수 27만 3,800톤을 수출했다고 전했다. 수출 호조세가 옥수수 시장에 낙관적인 전망을 더하고 있다고 상인들이 전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2%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기술적인 매수와 환매수로 인해 상승했다. 미 농무부는 민간 수출업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곳에 2018/19년도 대두 25만 톤을 수출했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대두박 수요가 잠재적으로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 중국 농림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과 억제가 복잡하고 심각하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2019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신입생 550명 모집

- 9 ~ 10월, 3개 전형(농수산, 도시인재, 일반) 원서접수 진행 -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9월과 10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통해 2019학년도 신입생 550명을 선발한다.
- 매년 수시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수시모집은 농수산인재전형과 도시인재전형,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신입생을 선발한다.
- **(원서접수)** 농수산인재전형 및 도시인재전형은 9월 10일(월) 9시 ~ 28일(금) 18시까지, 일반전형은 10월 8일(월) 9시 ~ 19일 (금) 18시까지 인터넷 접수 대행사사이트(www.jinhakapply.com)를 통해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 **(농수산인재전형, 110명)** 농수산계 고등학교 또는 농어촌(읍면) 소재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이나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다.
- **(도시인재전형, 58명)** 특별시 또는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이나 졸업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 **(일반전형, 382명)**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기타 법령에 따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전형별로 각각의 지원자격이 있는 만큼 농수산인재전형과 도시인재전형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지만, 농수산인재전형과 도시인재전형에 지원한 사람은 일반전형에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 만큼 해당 전형의 지원자는 이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특히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농수산계 고등학교 출신의 경우 농수산인재전형과 도시인재전型的 지원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2개 전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렴한세상 - 청백리 정봉 선생 일화



정봉은 조선중기 성종에서 중종 때의 문신으로 당시 정승인 성희안과



매우 친한 사이였다. 정봉이 당시 외직인 청송부사로 발령나자



얼마후 성희안이 편지를 보내 잣과 꼭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봉은 친구 성희안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당시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의 높은 관료에게 선물하는 일은 관행처럼 여겨졌으니, 하물며 친한 친구사이의 청탁이라 어려운 일도 아니었던만 절친의 청탁을 명분없는 일이라며 거절한 정봉.

성희안 역시 정봉의 강직한 태도에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워 했다고 하니,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며 청렴하게 살아온 정백리의 정신이 어떠했는지 짐작할만 하다.

국민권익위원회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VOL. 200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